

낭독의 발명

제2회 '서울, 젊은 작가들' 축제 리뷰

김중혁 소설가



세계의 젊은 작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마련한 '서울, 젊은 작가들' 축제에서다. 각국에서 온 40명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5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홍대 앞 곳곳에서 낭독회를 열고, 모여서 수다를 떨고, 함께 MT도 가고, 축구 경기도 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그들은 어떻게 '축제'를 즐겼을까. 기획위원이자, 낭독자이자, 축구선수(!)로 이 행사에 참여한 소설가 김중혁이 전하는 제2회 '서울, 젊은 작가들' 리뷰, 혹은 참가기.

페스티벌? 페스티벌!

벌써 2년이 지났다. 하지만 2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일산의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적당히 취해 있었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소설가 김연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술 마시냐? 5월에 행사가 하나 있는데, 참여할 생각 있냐?”

김연수는 대뜸 그렇게 물었다. 오랜 친구니까 반말로 얘기한 건 그렇다 쳐도, 무슨 행사인지는 설명해줘야 할 것 아냐.

“그래, 술 마신다. (똥으냐?) 행사? 무슨 행사데?”

“페스티벌.”

“페스티벌?”

“세계의 젊은 작가들이 서울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을 여는 거야. 재미있겠지?”

“재미있겠네.”

“참여할 거지?”

“그러지 뭐.”

라고 쉽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나는 페스티벌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렸다.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머리 속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열렬한 춤과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노는 거란 애긴데, 그것도 작가들과 함께 노는 거란 애긴데, 그러면,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행사의 정식 명칭은 ‘Seoul Young Writers’ Festival’ (이하 줄여서 SYWF)이었다. 나는 그 명칭을 듣고 무릎을 쳤다. 세상에, 어쩔 이렇게, 절대 함께 쓰지

못할 것 같은 네 개의 단어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을까. 서울과 젊음과 작가와 페스티벌을 한데 모아놓으니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작가와 페스티벌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았고(작가들이란 ‘혼자 놀기의 달인’이 아닌가, 나는야 16년 동안 계속 혼자서만 놀아온 ‘축제’ 김종혁 선생이란 말인가), 젊음과 작가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2006 SYWF 때 소설가 김연수는 “서울 젊은 작가 페스티벌에 참가하기엔 우리가 지나치게 ‘올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서울과 페스티벌은 그래도 좀 어울리나 싶다가도 그건 어쩐지 조작성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일, 야근, 경제, 성장’과 같은 살벌한 분위기의 낱말들이 아닌가 싶다. 이왕 시작한 김에 조합을 끝내보자. 남은 게 뭐가 있나. 서울과 젊음, 서울과 작가, 젊음과 페스티벌... (아, 머리 아프다. 이래서 내가 문과를 선택했던 것이다.) 아무튼 ‘서울 젊은 작가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묘한 이질감이 지금도 생생하다.

뭐든지 처음이란 건 난처한 법이다. 첫사랑이 그렇고, 첫경험도 그렇고, 1번 타자도 그렇고, 1회 수상자도 그렇다. 1회 대회도 마찬가지다. 제1회였던 2006 SYWF는 난처함의 연속이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보아요.”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번역된 작품이 없었고(오, 이런!), “에이, 작품이 없으면 어때요, 그럼 우리 문학에 대한 진실한 속마음을 나눠보아요”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영어를 못하고, 너는 한

국어를 못하고, 통역은 문학을 모르고, 심지어 통역은 자리를 비우고, 우리 둘만 남으니, 할 말이 없고, 하우 아 유 두잉? 잘 지낸다는데, 계속 잘 지내느냐고만 묻고, 이러다 보니 슬슬 피하는 상황이 되고 “난 역시 한국 작가들과 말이 잘 통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나는 외국 작가들과 짧은 영어로 계속 얘기를 나누었다. 4일쯤 지나자 그래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웠고, 외국 작가들은 천천히 말하는 법을 익혔다.

난처한 순간이 많았지만 2006 SYWF는 좋은 경험이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았다. 외국 작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고, 재미있는 한국 작가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지냈는데, 그것도 재미있었다. 서울이 외국 같았고, 일산의 집으로 돌아가니 여행에서 돌아온 기분이었다.

2년이 흘러, 2008 SYWF의 기획위원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딱 10초 정도 망설였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왼쪽 마음은 이랬다. ‘음, 아무 것도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데, 그리고 외국작가들과 힘겹게 영어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게다가, 기획위원이라면 아이디어도 내야 하는데...’ 반대쪽에 있던 오른쪽 마음은 이랬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밀바탕으로 좀더 좋은 2008 SYWF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인 것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월에 너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 그랬다. 5월엔 할 일이 없었다. 할 일이 생길지도 몰

랐지만 소설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었다. 그리고 좀더 재미있는 2008 SYWF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진심이었다.

내가 생각한 2006 SYWF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한국 작가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점. 둘째, 통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작가들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작가들이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사를 열었던 한국문학번역원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것만 고치면 훌륭한 페스티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위원들(소설가 오수연이 기획위원장이었으며, 시인 성기완, 문학평론가 정여울, 문화평론가 김종휘, 그리고 내가 기획위원이었다)은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기획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실무진들이 검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의 큰 틀이 잡혔다. 2006 SYWF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행사가 비공개였다는 것이다. 작가들과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우린 그걸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낭독회였다. 낭독회만 멋지게 치러진다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페스티벌 몇 달 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낭독회를 열 것인지에 기획회의의 초점을 맞췄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다. 할 일이 없을 것 같던 5월에 할 일이 많았고(사는 게 그렇다), 아차, 하고 나니 페스티벌 개막일이 되었다.

작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우주를 꺼내다

나는 한 번도 낭독회를 해본 적이 없었다. 다른 작가의 낭독을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어야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을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내 글이 잘 전달될 것인지, 어떤 장소가 내 글과 어울릴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그걸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페스티벌을 통해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실제 어떻게 낭독을 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작가들의 낭독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페스티벌의 의의는 충분했다.



내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재미있는 낭독을 한 작가는 (나와 같은 조에 속해 있던) 노르웨이 작가 엔드레 룬드 에릭센(Endre Lund Eriksen)이었다. 그는 <악동 테리에>라는 작품을 읽었는데(한국에도 번역되어 예담출판사에서 출간됐다), 변화무쌍한 목소리와 완벽한 대사전달이 놀라웠다. 그의 낭독을 5분쯤 듣고 나니 뒷이야기가 궁금했다. 외국에서는 새 책이 출간되면 작가들이 전국 낭독 투어를 한다는데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다. 낭독 투어를 하면 책도 많이 팔리겠지만, 그것보다 부러운 것은 그 분위기다. 나와 같은 조였던 노르웨이의 엔드레, 브라질의 미셸 라움(Michel Laub), 불가리아의 알렉 포포프(Alek Popov)는 모두 낭독회 유경험자들이었는데 다들 낭독회의 분위기를 사랑한다고 했다. 전국 낭독 투어를 한다고 해서 수많은 팬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다. 작은 서점에서, 혹은 학교에서 적은 인원이 모여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책장 사이로 나지막한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우두커니 앉아 작가의 목소리를 듣고, 가끔 웃고, 종종 감동하기도 하고, 밑줄 긋고 싶은 대목에서는 마음속의 페이지에다 형광펜을 칠하기도 한다. 그 분위기가 그저 부러울 뿐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가는 미국의 시인 어니스 모쥬가니(Anis Mojgani)였다. 그는 미국의 ‘National Individual Poetry Slam’(우리말로 옮기자면 ‘전국 낭독 대회’쯤 되겠다), 프랑스의 ‘World Cup Poetry Slam’(낭독 월드컵!), 캐나다의 ‘Individual World Poetry Slam’(세계 낭독 대회)과 같은 각종 대회를 휩쓴, 이른바 낭독 전문가였다. 페스티벌 전에 그의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시 한 편을 듣고 난 직후 나 역시 그의 팬이 되고 말았다. 페스티벌에서도 그의 낭독은 단연 하이라이트였다. 그는 목소리와 몸동작과 얼굴 표정을 모두 사용해 최대한의 시를 만들어냈다. 하나의 단어를 발음할 때는 정말 그 단어를 생각하게끔 말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때는 최초로 그 문장을 만든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랩퍼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을 조금씩 도발해 자신의 호흡에 끌어들이었다.

나만의 발견도 있었다. 소설가 한유주의 낭독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전에도 그의 소설이 한 편의 시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작가의 목소리로 들으니 시가 아니라 음악이었다. 느리게, 빠르게, 어눌하게, 재치 있게 자신의 소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부럽기도 했다. 한유주의 낭독은 ‘작가들이 왜 낭독회를 여는가’에 대한 답변 같았다. 그의 낭독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이런 리듬으로 쓴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빠르게, 그러다가 여기에선 조금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리게,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러다 다시 빨라지는 거예요.”라는 설명을 작품에 담을 수 없으니,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낭독이 재미있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그랬다. 한 작가의 낭독을 듣는 것은 그 작가의 문학과 생각과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다. 축구 선수가 모든 슛에 자신의 체중을 싣듯, 작가는 모든 문장에 자신의 우주를 묻어둔다.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 다음 단어를 생각하고, 두 개의 단어를 잇고,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때, 작가는 하나의 완벽한 우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작가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그 호흡을, 창작의 비밀을 발설하는데, 그런 순간이 재미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낭독회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동시에 두 곳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이었다. 기획위원이기에 앞서 작가로서 나 역시 모든 낭독회를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합리적인 계획표를 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절반의 낭독회밖에 보지 못했다. 대신 지금 내 손에는 모든 작가들의 낭독을 찍어놓은 비디오테이프가 들려 있다. 이 리뷰를 쓰기 위해서, 라는 핑계를 대고 빌린 테이프지만 내게는 보물이나 다름없다. 나는 두고두고 이 테이프를 리플레이해 볼 것이다. 리뷰를 쓰기 위해 지금도 나는 작가들의 낭독을 보고 있다.

테레사 까르데나스  의 낭독을 보지 못한 것

은 두고두고 안타깝다. 이 멋진 춤을 테이프로만 보다니. . . .

. 스테파노스 단돌로스  가 낭독할 때

는 얼굴을 보면 재미있다. 찡긋거리다가 웃다가 하는 얼굴 표

정에서 대사가 들리는 듯하다. 앤드레 룬드 에릭

센  의 표정, 목소리, 대사는 단연 최고다. . .

. 마티아스 괴리츠  는 거구다. 2미

터쯤 될까? 평소엔 장난기가 가득한데, 시를 읽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피에트로 그로시는 쾌활

한 성격에 걸맞게 춤을 추듯  낭독한다. . . .

. 스티븐 홀  은 맥주를 마시며 낭독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설을 뒤죽박죽 읽는다. 자신의 소설은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이었다. 영국 특유의 악센트를

듣고 있으면, 감미롭다.



한유주



의 소설은 음악이다. 전성태가 낭독한 작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의 작품이다.

은, 뭐, 그저 그렇다. 김경주



의

. . . . 정이현



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하다.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는 것 자체

탈의실 장면에서 주고받는 대사는, 참, 쓸쓸하구나.

. . . 강영숙



의 신중한 목소리, 그의 진심 어

가 행복이다. 김선우



의 목소

린 말투가 좋다. 김종광



의 입

의 작품을 건조하게 읽어 나가는 김윤영



의

으로 직접 듣는 사투리는, 생생하다. 직접 들으니 더 웃기다.

. 김경욱



의 낭독은 언뜻 어눌해

목소리에서는 조용한 냉소가 느껴진다. 투나키

보이기도 하지만 남녀의 목소리를 번갈아 내면서 작품 속의

유머를 모두 전달한다. 김중혁



소리가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권여선은 무뚝뚝

하다.



하지만 대사를 읽을 때는 또 어찌나

상냥한지. 미셸 라웁 에게는



렇지 않지만. 오수연 의 낭독



뭔가 아스라한 느낌이 있다. 낭독을 할 때도 그렇다.

을 들으면 어쩐지 정확하다는 느낌이 든다. 백가

. . . 이재웅 은 생각했던 그대로다. 어떤 생



흙 의 저음은 가슴 밑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각이냐면, 그게 참, 말로 표현하기 곤란하다. 이

건드리는 힘이 있다. 앨빈 팡



장욱 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서늘하다. 시집



은 웃기는 친구다. 마지막으로 낭독한 코믹 시가 압권이다.

에서 읽었을 때보다 감동이 두 배다. 울찌텍스

. 박성원 은 낭독 전부터 이상



루산도르지 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그



한 영어로 사람들을 웃기고 시작한다. 하지만 막상 낭독에 돌

의 팬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농담 전문가다.

입하니 사뭇 진지하다. 이런 모습 처음이다. 알

. 어니스 모쥬가니 야 더 말할 필요가



베르트 산체스 피놀 의 작품은 조금만 들어



없겠다. 혹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동영상 찾아

봐도 매력적이다. 한국에도 번역돼 있으니 (<차가운 피부>, <들

보길 바란다. 나카무라 후미노



넉 펄뎀) 꼭 사서 읽어봐야겠다. 로랑스 플라즈

리는 소년 같다. 자신의 작품을 읽을 때도 그렇다. 작품은 그

네 는 불어로 읽었다. 프랑스 작가니까 당연



한 것이다. 불어 발음만 들으면 어쩐지, 어쩐지 마음이 녹아내

마 타크로리  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

린다. 알렉 포포프  의 소설은

는 당신 뒤에 숨결을 불어 넣는다.' 그 시구처럼 조용하고 나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신 웃는다. 그의 작품 전체

지막하게 시를 읽는다. 그리고 노래도 부른다.

를 읽어보고 싶다. 신용목  은

할레조체 체홀라나  는 늘 긍정적으로 보인

천천히 얘기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웃긴다. 그가 시를 읽는 템

다. 예미  의 목소리는 자막을

포도 좋다. 안나 시킹  의 목소

보지 않고 듣고 있기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중

리에는 수줍음이 들어 있다. 심윤경은 내 예상

국어의 사뭇한 리듬감은, 아름답다. 올라 발렌

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은 작가였다.  그리고,

취츠  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다가 시

누군가에게 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아는

를 읽길 반복한다. 한편의 오페라를 듣고 있는 듯하다. . . .

작가다. 성기완  은 시집을 칼

. . . . 노트북을 보면서 퍽퍽 천천히 시를 읽어나가는 이

로 찢어 나눠주는 특유의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나 낭독의 압

원  의 낭독은 어쩐지 전위적이다.

권은, '친환경을 선도하는, 짜깁기 노래'다. 바시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필심(筆心)으로 대동단결

낭독회가 독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면, ‘작가들의 수다’는 말 그대로 작가들만의 시간이었다. 정해진 시나리오도 없었고, 질문지를 미리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기가 걸도는 느낌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침묵으로 유머를 만들어낸 작가도 있었고(몽골의 울찌텍스 루산도르지는 모든 대답을 ‘네’, ‘아니오’, ‘얘기하자면 길다’, ‘이따 술 먹으면서 얘기하자’로 일관해 끝내 작가들을 웃게 만들었다), 능청스러운 유머감각으로 사람들의 배꼽을 빼놓은 작가도 있었고(쿠바의 페레사 까르테나스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지만 한국 작가들이 너무 입을 닫고 있다’고 얘기하자, 소설가 김경옥은 ‘오해다. 한국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것인가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저 작가가 머릿속에 영감이 떠올랐나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뜬금없고 갑작스런 질문으로 사람들을 웃겼던 작가(소설가 박성원과 김종광)도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들은 모두 글을 쓰는 작가들이라는 암묵의 연대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 연대감은 수많은 나라의 작가를 하나의 끈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기획위원장이었던 소설가 오수연은 환영의 인사에다 이렇게 적었다. “문학에 대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학도 삶에서 나옵니다. 언어로 쓰이지만 문학은 언어 이상입니다. 언어와 삶 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간격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문인과 독자들은 영원한 목표를 추구하는 자들이

며, 동지들입니다.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삶을 느끼고 싶습니다. 서로 만나 달라지는 만큼 문학도 달라질 겁니다. 언어의 짐을 지고 언어 너머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언어의 너머에서 작가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언어의 너머에서 작가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다보니(라기보다는 남자 작가들이 모두 축구를 좋아하다보니) 축구시합도 벌어졌다. 축구시합에 서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다. 페스티벌의 첫날, 이탈리아 작가 피에트로 그로시가 팀 결성을 제안했고, 대부분의 남자 작가들이 동의했다. 사실, 제1회 SYWF 때에도 (말이 좋아) 한국 슈퍼스타 작가팀 대 (혹시 몰라) 세계 올스타 작가팀의 축구시합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축구시합을 공식 행사로 넣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가들이 스스로 축구시합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말이 좋아) 한국 슈퍼스타 작가팀 대 (혹시 몰라) 세계 올스타 작가팀의 시합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글로벌’한 연대가 이뤄졌다. 세계 소설가팀 대 세계 시인팀의 맞대결이 벌어졌다. 영주 선비촌 근처의 작은 운동장에서 벌어진 시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전반전이 끝나고 난 후 나를 포함한 몇몇 작가는 급격한 체력저하로 인해 피를 토하며 쓰러질 뻔했고, 후반전이 시작되자 외국의 작가들 역시 달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명색이 젊은 작가들인데, 이 건 뭐, 젊다고 보긴 힘들었다. 그리스의 스테파노스 단돌로스(유로2004 우승국가답다), 브라질의

미셸 라웁(어설퍼도 브라질인데)이 있었기에 소설 가담이 신승을 거뒀다. 막상막하였고, 그래서 재미 있는 경기였다. 덕분에 노르웨이의 엔드레는 반바지 차림으로 부석사로 향해야 했고(그는 부석사로 향하는 버스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부석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내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작가들도 있었지만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경기였다. 몇몇 여자 작가들은 축구장 옆 배구장에서 배구를 했는데, 그 풍경 역시 아주 아름다웠다.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페스티벌은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도 많았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늦게 영역되는 바람에 외국 작가들이 읽을 시간이 없었고(대부분의 작가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겠다고 했지만, 우리도 안다, 집에 가면 안 본다), 짧은 기간에 많은 낭독회를 하다보니 기획의 집중력이 떨어진 점도 있었다. 여기에서 페스티벌의 문제점을 모두 적어보라고 한다면, 아주 긴 리포트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회 때에도 그랬듯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낭독회에서 수많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신나게 놀았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겪었다.

아무리 이 페스티벌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페스티벌은 이제 겨우 2회째일 뿐이다. 2010년에 세번째 페스티벌이 열리고, 2012년에 다시 네번째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열번째 페스티벌이 열릴 때쯤이면, 분명히 무

엇인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페스티벌도 바뀌어 있을 것이고, 페스티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 지속의 힘이야말로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2년 전, 나는 페스티벌이라는 말에 이끌려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의 SYWF에도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었다.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혹은 발표회 같은 이름이 붙어 있었더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세번째, 네번째 페스티벌에 참가할 작가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아, 나는 더 이상 Young Writer에 속하지 못할 것 같다.) 부족한 점은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겠지만, SYWF가 ‘페스티벌’이라는 사실만은 모두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번째, 네번째 페스티벌의 기획위원들은 ‘좀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좀더 의미 있게 놀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신나게 웃고 떠들고 놀았으면 좋겠다. 페스티벌을 위해서라면 일주일의 시간쯤은 허비해도 괜찮다, 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허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다.



글쓴이 **김중혁** 1971년생. 2000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중편 〈펄컨뉴스〉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작품집으로 〈펄컨뉴스〉, 〈악기들의 도서관〉이 있다. 단편소설 〈옛박자D〉로 제2회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하였다.

